

이창용 총재, 긴축기조 재확인… “금리인하, 앞선 생각”

한은 기준금리 동결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강조
일각선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분석
“선부른 부양책, 부작용이 더 많아”

“통화 긴축 기조가 6개월 이상 될 것이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많이 든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긴축기조를 가져갈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6%에서 내년 2.6%까지 떨어진 뒤 2025년이 돼야 2%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금리인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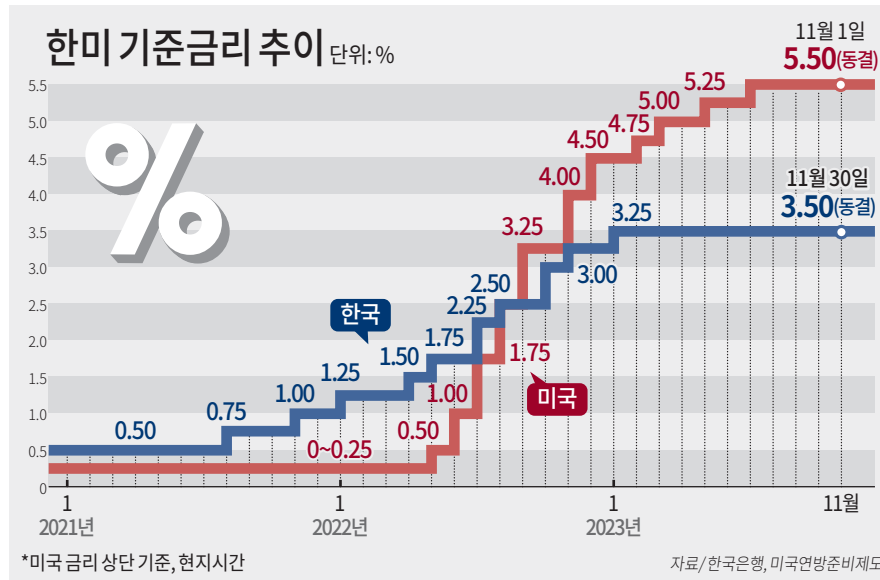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조만간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니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제결제은행(BIS)회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통위에서도 감지됐다. 지난달 금통위원 중 한 명은 성장률 침체를 우려해 금리인상과 마찬가지로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해당발언을 철



회했다.

이 총재는 “당시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자고 한 건 국제유가가 튀어올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악화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정세도 예단은 어렵지만 주변국이 전쟁을 확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도 많이 안정된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야기한) 불확실성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금리인상 영향 받아”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와 관련해 서서히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분기 105.8%에서 2분기 105.4%, 3분기 105.3%, 4분기 105%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고 있다”며 “기업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계부채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한 두달 안에 판단하지 말고 이번정부 끝날 때 즈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 타깃 재정정책 필요성 강조

이날 이 총재는 내년이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선부른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으므로 타깃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내년에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단계에서는 부양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2% 성장률이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자선냄비 준비하는 구세군

30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세군남동평강의마에서 구세군 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선냄비 0모금 활동을 앞두고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반도체 시장, 13% 이상 성장 전망

증권가, 삼성 등 목표주가 상향 조정
업계 “‘슈퍼사이클’ 이어지진 않을 것”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과도한 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13.1% 성장할 전망이다.

메모리 시장 회복이 핵심이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한자릿수인 다른 분야와는 달리, 메모리 만큼은 44.8%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증권가에서도 4분기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 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모습, 유안타 증권은 메모리 사업 영업이익이 15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메모리 시장 회복세는 이미 가시화됐다. 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 등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 3분기부터는 반등을 본격화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수치로도 입증됐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한때 1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DDR4 8Gb 가격이 1달러 후반대로 올라섰다. 제조사에서도 공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전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ICT 수출에서도 메모리 수출이 16개월만에 전년 동기보다 1% 늘어난 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을 크게 높이는 모습이 다. 업계에서 보는 DDR5 D램 비중은 30% 가량, 인텔 신규 서버용 CPU 출시와 서버 업계 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머지 않아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품귀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방 산업 수요도 회복하는 분위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27개월만에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신흥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스마트폰 업계도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경쟁이 이어질 예정, AI와 VR 기기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회복세가 ‘슈퍼사이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무역 분쟁 등으로 수요 회복이 더딘 탓이다. HBM 효과도 전체 비중으로는 크지 않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정상화도 아직 멀었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회복세가 분명하지만 내년에는 정상화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2025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비트코인, 18개월만에 연고점 경신

지난달 29일 기준 3만8350弗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반영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8000달러 돌파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하락 후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어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9일 3만83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8000달러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후 차익매물이 발생하면서 3만 77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숨고르기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월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지만 현재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윌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도 긴축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윌러 이사가 금리 인하에 힘을 쓰는 비둘기파(통화 양적완화 선호)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

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거부 이유로 시세조종을 강조했지만, 최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평이 증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하면서 승인거부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발행해도 비트코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바이낸스가 도와줘야 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4만 달러 돌파 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화폐 트레이더 마이클 반 포프는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며 “3만8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4만달러가 다음 (저항선)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SC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말까지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 202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유도이미지